

가정의 달
선교주간

꿈이 있는 교회
섬김이 있는 교회
어제보다 오늘 더 행복한 교회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하여 본을 보였노라.
요한복음 13:14-15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마태복음 7:24

“민음의 뿌리를 굳게 내리는 해”

“성령님의 역사가 감절이나 내게 있게 하소서!” (열왕기하 2:9)



민음
섬김의 교회
church of servants

예 배 WORSHIP

May 22, 12:30 pm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최선의 주일예배

	환영과 축복 사역과 소식 (교회 / 교우)
하나님 앞으로	찬양과 경배 / 찬양팀과 함께 예배기도 / 최선운 집사 주님 가르치신 기도
말씀과 결단	성경말씀 출애굽기 8:20-32 “결코 우연이 아닌” 말씀선포 / 김성배 목사 (결단의 기도)
헌신과 열매 (봉헌 / 나눔)	봉 헌 / 김훈테 집사, 유동숙 집사 봉헌찬송 / 나의 생명 드리니 - 5, *4절
살과 세상으로	* 찬 양 / 이 땅의 황무함을 보소서 * 축 도 / 김성배 목사

*표는 모두 일어 셉니다

예배시간 10분전 휴대전화 점검과 목상으로 준비합니다.
진정한 예배는 교회문을 나서는 순간부터 시작 됩니다.

금 요 찬 양 예 배

찬양과 기도

말씀 : 김성배 목사 / 골로새서 3:15-17

하나님의 평강

“하나님의 나라”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환영과 교제의 식탁 섬김의 교회를 방문하신 분들을 하나님의 사랑으로 환영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예배후 주일 만찬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성도의 교제에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사역 / 행사

5월은 “가정의 달”입니다. 천국의 기쁨과 평화를 이웃과 세상과 나눕시다.

1. 2022년은 믿음의 뿌리를 굳게 내리는 해입니다.

“성령님의 역사가 갑절이나 내게 있게 하소서!”(열왕기하 2:9)
건강한 성장, 풍성한 열매, 더 많은 나눔을 추구하는 교회

2. 선교주간 하나님나라 확장을 위해 수고하는 선교사를 위해 기도합니다.

3. 오순절 예수님을 깊이 묵상하며, 성령님으로 충만하도록 기도합니다

4. 성경공부와 기도 모임(주일 오전11시-11시 45분)
말씀과 기도는 영혼의 생명줄입니다. 모두 참여합니다.

5. 토요일 새벽기도 (오전 7시) 함께 전심으로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6. 믿음의 뿌리내리기

- 1) 기도운동 증보기도의 능력을 체험하기
- 2) 예배 하나님께 집중하는 예배자로 예배하는 결단

7. 야외예배(6/19) 함께 준비합니다.

▶ 5월의 사역 - 선교주간(22-29) 선교주일(30)

♥5월 생일축하♥ 구민(8) 구민우(16) 김진숙(17) 최내권(20)

기도제목

1. 교회와 성도를 섬기는 목회자와 사역자들의 강건함과 사역을 위해
2. 하나님의 은혜로 성도의 안전과 건강(특히, 정홍렬목사, 박진성집사, 최윤정양의 회복과 치유)을 위해
3. 교우들이 청지기의 사명을 가지고 사역하며 직장에서 일하도록
4. 자녀의 신앙교육과 Youth Ministry 2세 사역자를 하나님께서 보내 주시도록
5.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새사역 장소에서 새로운 교회의 성숙과 성장의 계기가 되도록

예배섬김이

주일예배기도	5/22	5/29	6/5	6/12
	최선윤집사	구민집사	김훈태집사	구은강집사
주일헌금위원	5/22	5/29	6/5	6/12
	김훈태집사/유동숙집사		최선윤집사/박진성집사	
주일안내위원	5월		6월	
	구민집사		김훈태집사	

말씀노트

말씀노트 Sermon Note

〈지난주일 말씀요약〉 **하나님이 축복으로 맡겨주신 자리에서** / 출애굽기 8:1-15

무엇이든 있어야 할 자리에 있을 때 아름답다. 사람은 말할 나위 없다. 그 자리를 이탈하면, 조화를 상실하고 문제가 발생한다. 개구리 재앙은 생태계의 작은 질서를 무너뜨리고 바로와 이집트는 큰 고통을 경험했다. 결국 하나님의 도움으로 문제를 해결한다. 그럼에도 바로는 더 완악해져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다. 피조물인 사람이 자신의 영역을 넘어서서 하나님께 도전하면 어떤 결과를 가져오겠는가? 기후변화, 자연재해, 전쟁 등으로 개인의 삶과 공동체가 고통을 겪게 된다. 교회도 마찬가지이다. 각자의 자리로 돌아가는 아름다움을 회복하자. 각자의 자리에서 맡은 역할을 충실히 감당하면, 질서와 조화가 가득하게 된다. 당신의 삶에서 어떤 부분이 질서가 깨졌는가. 바로 세워야 한다. 하나님이 만드신 질서를 회복하는 가운데, 약속하신 축복을 더 풍성히 누릴 수 있다.

결코 우연이 아닌 / 출애굽기 8:20-32

하나님의 권능을 경험하나 깨닫지 못하는 이집트 왕

파리 떼 재앙

하지만 파리 떼가 없던 고센 지방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은혜와 선택

바로와 모세의 기도

그러나 하나님의 권능과 영광을 외면하는 바로

하나님의 섭리 속에 퍼즐 조각처럼 맞춰지는 우리의 삶

결코 우연이 아닌 / 출애굽기 8:20-32

하나님은 세상에 권능과 영광을 보여 주시지만, 모두 깨닫고 하나님을 찬양하지는 않는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들만이 하나님을 경배한다. 이 진리를 세 번째, 네 번째 재앙 이와 파리 떼가 명백히 보여준다. 세 번째부터는 바로의 술사들이 모방할 수 없게 된다. 하나님은 네 번째 재앙 파리 떼를 이집트 전역에 가득하게 만드셨다. 이스라엘이 살던 고센지방을 제외되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특별히 대우하셨음이다. 중요한 것은 이 파리 떼는 자연변화로 우연히 발생한 재앙이 아리나는 점이다.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로 발생했다. 세상은 “우연”이란 표현을 흔히 사용한다. “우연히 만난 좋은 사람.” “우연히 찾아 온 행운.” 심지어 과학에서도 “우연히 질소에서 단백질이” 그리고 “우연히 단백질이 단세포 생물로” 진화해 “다세포가 되고.” 그리고 “우연히 사람으로” 진화되었다고 주장한다.

그러한가? 하나님의 계획과 은혜 가운데 일어난다. 고센 지역 만 예외가 된 파리 떼 재앙은 “우연”으로 결코 설명되지 않는다. 이스라엘이 어떤 자격이나 조건을 갖추었기 때문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였다. 그러기에 하나님의 택함과 구별은 결코 변하지 않는다. 이스라엘은 그 어떤 일도 하지 않았고 자격도 갖추지 못했음에도 하나님은 그들을 구별하셨다.

바로는 모세에게 파리 떼 재앙의 해결을 부탁하고, 모세는 날짜와 시간을 명시하고 기도함으로 하나님께서 문제를 해결하신다. 문제는 바로의 완강함이었다. 기적을 보았음에도 보지 않은 것처럼, 우연이 아닌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했음에도 그는 하나님의 권능을 받아드리지 않는다.

우리도 고백해야 한다. 하나님의 은혜와 섭리 없이는 진리를 볼 수도 없고, 깨닫지도 못한다. 하나님의 주권과 영광을 경험하면서도 깨닫지 못할까 두려워해야 한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을 알고 예배하며,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 수 있음을 감사해야 한다.

우리 인생의 굽이 마다,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이 있었다. 때로는 겪는 고난을 다 이해할 수 없어도 분명 하나님의 계획과 뜻이 있다.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라는 큰 그림의 퍼즐 조각들로 분명 있어야 할 자리가 있고, 정확하게 그 자리에 맞추어 진다.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하나님의 인도를 감사하게 된다. 나를 택하시고, 나에게 은혜를 내려주시고,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높이자

말씀적용과 실천노트

Application Note

삼과 신앙

눈물을 통해 일하신다

남편은 말씀 전하러 부산에 갔고, 나 혼자 양산에서 1부 주일예배를 드리고 축도 끝나고 남편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눈물이 쏟아졌다. 남편이 설교하러 간 교회는 개척한 지 몇 년이 지났지만 성도가 몇 명밖에 되지 않는 곳이었다.

“하나님, 오늘 남편이 말씀을 전할 때 담임목사님이 제일 은혜받게 해 주세요. 남편의 설교가 오늘 목사님께 제일 위로가 되고 소망이 되는 메시지가 되게 해주세요. 그 교회에 큰 은혜를 부어주세요.”

하염없이 흐르는 눈물을 닦으며 짧은 시간이었지만 간절히 중보했다. 오후에 남편에게 문자로 말씀 잘 전하셨는지 안부를 물으니 남편이 ‘감동의 도가니’였다고 답을 했다.

“여보, 그럴 줄 알았어요. 내가 오늘 예배 때 중보하는데 눈물이 많이 나더라고요.”

지난 삶을 돌아보니, 하나님께서는 무슨 일을 행하시기 전에 나에게 항상 눈물을 주셨다. 눈물을 쌓게 하셨고, 눈물로 준비하게 하셨다. 아이를 한 명씩 품을 때마다 그때에도 눈물을 많이 주셨고 눈물로 낳게 하셨다.

《바보 엄마》책이 출판되고 나서 여진구 대표님과 통화를 했을 때 대표님이 이런 말씀을 해주셨다.

“투고하신 분들의 명단을 놓고 기도를 하는데, 선교사님의 이름 차례가 되니 하나님께서 ‘이 딸을 통해 내가 영광을 받고 싶다’라고 말씀해주셨어요. 그래서 출판 확정이 난 거랍니다.”

순간 나의 눈물의 기도를 다 보고 계셨고 다 듣고 계셨을 뿐만 아니라 일하시고 역사하신 하나님을 떠올리니 또 눈물이 났다.

그리고 하나님은 나의 눈물을 사용하셨다. 나의 눈물을 통해 일하시는 것을 보게 하셨다. 《바보 엄마》를 읽은 분들에게서 가장 많이 들었던 말은 “눈물로 읽었어요”, “눈물이 글에 박혀있는 것 같았어요”였다. 울고 또 울었던 나를 통해 엄마들에게도 동일하게 눈물을 부어 주신 것이다.

더욱 놀랍게도, 직접 강의를 가서든 줌(zoom, 화상 회의 및

채팅 앱)을 통해서든, 나를 세우신 곳마다 엄마들의 눈물이 터지고 주님을 향한 눈물이 회복되는 것을 보게 하셨다. 내가 생각해도 나는 너무 눈물이 많은데 이것 또한 하나님 앞에서 은사가 될 수 있고 통로가 될 수 있다는 것도 참으로 은혜였다.

하나님은 나에게 순종과 헌신, 결단을 요구하시기 전에 눈물을 주시면서, 그 눈물의 은혜가 너무도 강력해서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부여주시는 감동대로 행하고 싶은 마음이 들게 해주셨다.

그런데 참 부끄럽게도 그렇게 주님 앞에서 뜨거운 눈물을 흘리며 결단하는 것과 실제로 삶을 살아내는 것은 하늘과 땅 차이 같을 때가 많았다. 주님이 주시는 감동에 순종해서 ‘주님, 제가 할게요!’라고 했지만 막상 살아보니 때로는 너무 힘들고, 눈물로 기도했던 대로 살지 못하는 내 모습에 나에겐 또 눈물이 필요했다. 눈물로 감동을 주셨지만, 그 감동을 살아내기 위해서도 또 눈물이 필요했던 것이다.

그런 나를 하나님께서 늘 받아주셔서 참 감사하다. 주님 앞에서 못할 것이 없는 양 마음이 뜨거워져서 눈물로 헌신을 결단하는 나도 기뻐하셨고, 실제 삶에서는 그 감동대로 살아내는 것이 어려워서 그렇게 살아낼 수 있기를 위해서 또 눈물로 기도하는 나도 기뻐하셨다. 그래서 그렇게 살아낼 수 없을 것 같은 나를 그 눈물을 통해서 ‘살아내는 자’로 조금씩 바꾸어 가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했다.

혹시 당신의 삶에도 눈물이 쌓이는 일들이 있는가? 하나님께서 그 눈물을 통해서 당신에게 선하신 일을 시작하실 것을 기대하기 바란다. 그 눈물이 보잘것없어 보일 수도 있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눈물 속에 그분의 마음을 더욱 부으시고, 그 눈물을 통해 그분의 능력을 나타내 보이신다. 아무도 몰라줘도 하나님은 우리의 눈물을 주목하고 계시기에 눈물은 능력이 된다.

권미나, 『울보 엄마』



“**엄마 씨를 뿌리러 나가면 나는 바드사 기쁨으로 그 관서 대응 가져고 돌아오리다.**”

시편 126장 6절

교회를 섬기는 분들

LEAD PASTOR 김성배 목사

WORSHIP LEADER 박진성 집사

SUNDAY SCHOOL 김진속 전도사

섬김의 교회는...

- ▶ 최고의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기 위해 최선을 다합니다.
- ▶ 하나님의 사랑에 빛진 교회의 사람으로, 섬김을 기쁨으로 생각합니다.
- ▶ 하나님께서 주신 꿈을 향해 쉬지않고 성장합니다.
- ▶ 어제보다 오늘, 오늘보다 내일 더 행복한 교회와 가정, 개인의 생활을 소망합니다.
- ▶ 하나님의 나라를 모든 사역과 삶의 영역에서 세웁니다.

예배 및 모임 안내

주 일 예 배 / LORD'S DAY WORSHIP : SUNDAY 12:30 PM

주 일 학 교 / SUNDAY SCHOOL : SUNDAY 12:30 PM

주일성경공부 / SUNDAY BIBLE STUDIES : SUNDAY 11:00 AM

금요찬양예배 / FRIDAY SERVICES : FRIDAY 7:30 PM

새벽경건회 / EARLY MORNING DEVOTIONS : TUESDAY~FRIDAY 6:00 AM
SATURDAY 7:00 AM

성 경 공 부 / BIBLE STUDIES : SUNDAY 2:30 PM
WEDNESDAY 7:00 PM

일대일 제자 훈련 / DISCIPLESHIP CLASSES : WEDNESDAY 7:30 PM

교회위치 (Our Location)



섬기는 목회자 : 김성배 목사

847-691-7846 / www.churchofservant.com
800 East Palatine Road, Palatine, Illinois 60074